

■ 르포 - '설 특수 비상' 유통·택배 업체

배달 상품 쓰나미 "전쟁 시작됐다"

설 명절(2월17일~19일)을 2주 앞둔 요즘 유통업계가 바빠졌다. 과일, 갈비, 건강식품에서 옷, 이불까지, 올해는 특히 설 명절 연휴도 3일밖에 안 돼 마음의 여유가 더 없다.

지난 2일 오전 9시, 광주 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단체선물상담팀' 사무실. 팀의 아침 회의가 시작됐다. "경계가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저렴한 상품을 원하는 기업이 많아요." "사전 조사 결과 올해는 치약·비누 같은 공산품보다 참치나 햄 등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마케팅(38) 팀장과 팀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단체선물상담팀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15일 꾸러진, 전략 TF(task force)팀. 직원 5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으로 꾸러져 있다.

바로 옆 검품장에서는 배송 작업이 한창이다. "조심조심! 정성 들여 보내는 물건들이니까 바빠도 던지지 마세요." 차필호(46) 배송 팀장이 배송 사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내가 안에서 물건을 쌓을 테니까, 한 줄로 서서 나한테 건네줘." 배송 사원 오도환(34)씨의 말에 아르바이트생 정광진(23)씨와 박호준(23)씨가 거들었다. "털~ 털~ 털~" 검품장에 일렬로 주어진 10여 대의 택배 차의 세찬 엔진 소리가 흥을 돋웠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일부터 매장에 설 선물세트를 진열, 설 행사를 시작했다. 백화점에는 이날 이후 쇠고기·은갈치·과일 등 하루 평균 100여 상자씩 주문·배달되고 있으며, 상담실에는 평균 40여 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명절 선물 접수는 전국은 14일, 광주는

연휴 짧아지고 배송 선물은 늘어 대책팀 꾸려 하루 24시간 서비스

16일까지다. 광주는 백화점 냉동차 3대와 택배서비스 차량 60대로 당일 배송하며, 전남은 서부(목포·무안·함평·영광)와 동부(순천·여수·광양·여천)로 권역을 나눠 늦어도 2일 안에 전달할 계획이다. 받는 사람이 불쾌하지 않게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배송한다. 신세계는 원활한 상품배송을 위해 전화상담·접수·배송 인력 등 아르바이트생 68명을 채용했다.

택배업체도 설 특수를 잡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현대택배·

한진·대한통운·CJ GLS 등 대형 택배업체들은 종합비상상황실을 가동, 설날 특별수송시스템으로 바꿨다.

현대택배는 설날 1주일 전에는 취급물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부터 24시간 종합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진은 설 특수가 시작되는 7일부터 10일까지 하루평균 37만 박스를 처리하고, 물량이 집중되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하루평균 50만~56만 박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합병한 CJ GLS와 HTH도

'설 특수 운영 전담반'을 운영, 전 직원이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며 내근 직원도 배송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채신청도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를 '설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설 우편물 특별 소통대책반'을 꾸렸다.

채신청은 올해 택배물량이 지난해(110만7천통·1월16일~28일)에 비해 20%(약 132만8천통)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배달 차량을 96대에서 170대로 늘릴 계획이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차필호 배송 팀장은 "올 설에는 지난해보다 15% 정도 증가한 1만4천여 건의 배송이 예상된다"면서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인 만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배송 사원과 아르바이트생들이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검품장에 가득 쌓인 설 명절 주문 물품을 배달 트럭에 옮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폭 김태춘, 권상우 협박 내용

"나 김태춘인데... 안 만나주면 집이 X 바다 돼도 상관없어?"

영화배우 권상우씨를 협박한 서방과 옛 두목 김태춘씨가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권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종교활동 중 알게 된 불쌍한 친구 N씨로부터 "권씨가 시계를 받고도 팬미팅 공연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권씨에게 이를 따지려고 했던 것이다.

김씨는 권씨의 지인이 휴대전화 대신 받아 "나 김태춘인데... 권상우가 일본에서 시계를 받고도 공연을 해주지 않는다고 들었다. 권상우를 만나야겠다"고 운을 폈다. 이어 "권상우 집이 ○빌라 000호 맞지? 안 만나주면 집이 X 바다 돼도 상관없느냐"고 권씨를 위협했다.

이튿날 김씨는 권씨와 직접 통화하면서 "내가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는데, 애들이 얘기를 안 했다

〈권상우씨〉

〈김태춘씨〉

거절했다. 김씨는 "내가 이름을 밝혔는데도 전화로 해야겠느냐"며 "나를 안 만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거지?"라고 또다시 위협했다. 권씨는 통화내용을 직접 녹음한 뒤 검찰에 넘겼다.

권씨는 또 폭력조직인 양은이과 부두목적 인력의 아들이자 폭력조직 S과의 조직원 출신인 매니저 백도씨로부터 독점 계약을 강요받기도 했다. 백씨는 매니저 계약이 끝난 2005년 11월 권씨가 사생활과 관련해 '약점'이 있다는 점을 알고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다.

권씨는 "소속사에 있는 동안 매니저먼트 일은 백씨에게 위임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피의자에 거짓진술 요구 검사장 대국민 사과

제이유그룹 로비 사건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6일 담당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선우성 동부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담당검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조사방식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춘성 동부지검 차장검사도 기자회견 직후 피의자가 녹취록을 갖고 검사를 위협한 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사실이) 어떻다고 얘기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제이유 사건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여론을 남겼다. 한편 대검찰청 검찰부는 담당 검사인 B검사를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하고 수사업무에서 배제키로 하고, 김태현 검찰부장을 반장으로 중앙수사부 검사를 포함하는 특별감찰반을 구성,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지난해 9월 B검사는 전 제이유그룹 이사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진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한다. 거짓말을 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을 하라"며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직접 쓴 조서에 서명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연남뉴스

연남뉴스

나원침 (7048) 김장동



광주광역시 중구... 062-367-9000

고교생 차운전 6명 중경상

6일 새벽 2시에 광주시 서구 치평동 도로에서 최모(18·광주 K고 3년)군이 몰던 29모21××호 세라토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고교생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여지화장실서 물레 촬영 '덜미'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벗은 모습을 찍으려던 타 대학생이 덜미.

○6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용인 H대학생 박모(20)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에 북구 두암동 D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물레 들어가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고 '덜미'를 보고 있던 여대생을 촬영하려 했다는 것.

○박씨는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학생 전모(25)씨에게 붙잡혔는데, "남자 화장실로 착각해 들어갔는데, 사람이 계속 들어와 20분 동안 갇혀있다가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여제자 성희롱 교수 실명 거론 공익 위한다면 명예훼손 무죄"

대법원 판결
여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동료 교수의 실명을 공개 거론했다고 하더라도 학내 성희롱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한 대법관)는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모(47) 광주 모 대학 교수에 대한 상

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으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고, 학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2004년 5월 학과 수련회 때 같은 과 겸임교수인 A씨가 취중에 여학생 몸에 팔을 두르며 '갈

이 자자'는 성희롱 발언을 하자, 한 달 후 학과 행사에서 A씨의 실명과 함께 당시 일을 '불미스런 일'로 거론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과 법원은 당시 혐의 사실을 인정,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조 교수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2005년 초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기를 1대로... 080-701-7117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02-3664-1066